

# 겨울여행 문제 없다... 여수 '실내 관광지' 눈길

복합 놀이터 '여수예술랜드' 전라좌수영의 본영 '진남관' 체험 공간 '엑스포해양공원' 종포해양공원 '하멜전시관'

한파와 폭설 등 최근 번덕스러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여수시의 실내 관광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여수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간절기를 맞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여행지를 추천했다.

먼저 여수만의 이색 관광지로서 꼽히는 '여수예술랜드'는 리조트와 카페, 조각공원,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복합 놀이터다.

실내 공간인 3D뮤지엄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국내 최대 테마형 트릭아트'와 '미디어 터널'을 즐길 수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안성맞춤이다.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내 아쿠아플라넷에서 아이들이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을 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특히 예술랜드 내 새롭게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는 오는 28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25일부터 27일까지 임시운행을 진행해 해발 150m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진남관'은 여수 대표 역사 관광 명소다.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올해 재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보수 정비가 추진 중인 가운데 관광객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임란유물 전시관'도 있어 임진왜란 때의 해전 상황과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보로 5분 거리에는 이순신 광장과 거북선도 자리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 뮤지엄'과 국내 2위 규모의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등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콘텐츠가 풍부한 '여수엑스포해양공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개관하면서 다양한 체험형 과학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종포해양공원 안에서는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 머물렀던 역사를 기록한 '하멜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다.

'네덜란드가 기증한 하멜보고서 모사본'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가 마련돼 있으며 하멜의 일대기와 조선의 국정 운영 등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다.

인근에는 하멜등대와 해상케이블카, 거북선대교, 낭만포차 등 여수를 대표하는 명소들도 많아 밤바다의 정취와 제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날씨와 상관없이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과학 등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모았다"며 "온 가족이 함께 떠나도 다채로운 콘텐츠를 각자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13일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원들이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칼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새해 첫 봉사활동

칼갈이, 이·미용, 양한방 치료 등

고흥군은 13일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올해 첫 어깨동무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풍양면 한동리 4개 마을 주민 230여명을 대상으로 방충망, 칼갈이, 이·미용, 양한방 치료 등 30개 분야에 60여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은 민관 협업을 통해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지난해 총 18회 봉사활동을 통해 1만 3843건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6개 읍면에 각각 1회씩 총 16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섬 지역과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소소한 자원봉사단도 7회 운영해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27일 동일면 덕흥마을에서 덕흥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55회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 광양시, '선샤인 파크골프장' 임시 운영

18홀 규모...정식 개장은 4월

광양시가 오는 4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선샤인 파크골프장'을 임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도이동 846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해당 사업은 (가칭)동부권 파크골프장으로 추진됐지만, 지난달 광양시의 대표 브랜드인 '선샤인'을 반영해 '선샤인 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선샤인 파크골프장'은 정식 개장에 앞서 광양시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운영 중이다.

광양시는 임시 운영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사항을 점검·정비하고, 향후 정식 개장 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양시는 동천파크골프장, 섬진강 둔치파크골프장 등 2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신규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지역 내 파크골프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선샤인 파크골프장 임시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체육시설팀(061-797-2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문화 생활로 활력을" 광양 '중마교역소' 운영 재개

'토요피크닉' 참가자 공모 버스킹·피크닉 레크리에이션 3월말부터 10월까지 운영

광양시민과 주변 도시민들이 문화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광양 문화교역소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다시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13일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중마교역소 토요피크닉' 문화예술활동참가자 공모를 시작하며 올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마교역소는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컨테이너를 중마생태공원 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물류'를 상징하는 컨테이너 3동을 활용해 '물류도시 광양'이라는 도시 상징성을

을 더한 곳이다.

특히 중마교역소에서 진행되는 '토요피크닉'은 중마교역소를 활성화하고 관계권역별 거점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 말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피크닉을 즐기듯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11일부터 참가팀 공모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3월-7월) 프로그램 운영팀(혹은 개인)을 모집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버스킹 공연, 피크닉 레크리에이션 등 총 2개다.

먼저 '버스킹 공연' 분야는 노래·연주·

댄스 공연 등 음향장비를 소지한 소규모 야외공연팀(혹은 개인)으로 최대 16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팀(개인)당 최대 2회까지 참가 지원이 가능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피크닉 레크리에이션' 분야는 게임, 체험 등 피크닉에 참여한 시민 대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팀(최소 2명 이상 구성 필수)으로 최대 8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팀은 역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자 공모는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3월7일 최종 참가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양문화도시센터 온라인 홈페이지(www.gy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순천시, 'SNS 구독' 오프라인 이벤트

19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순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9일 조례호수공원에서 'SNS 구독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

정 소식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순천시 공식 SNS를 홍보하고, 최근 개설한 당근마켓 '순천시청' 채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 2개 이상을 구독한 시민에게 마스크

'루미팡이' 그립톡을 증정, 당근마켓에서 '순천시청'과 단골을 맺으면 순천에서 수확한 신선한 당근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카카오톡(순천시청), 페이스북(순천시), 네이버 밴드(순천시), 인스타그램(@suncheon), 유튜브(순천시), 네이버 블로그(순천시), 당근마켓(순천시청) 등 7개의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8만명이 구독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장흥군, 회령포 이순신 축제 5월16일 개최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서 3일간

장흥군이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오는 5월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의 효시는 장흥군 회진면의 전어축제, 지난

2017년 회령포의 역사성에 전 군민이 공감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회령포 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2023년에는 명량대첩 축제와의 연계를 위해 축제 명칭을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로 바꿈과 동시에 군 축제로 승격했다.

이날 개최된 1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들의 추대로 당선된 황호연 2025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장의 진행을 바탕으로 추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행사

일을 결정했다.

올해 행사일은 예년과 달리 낙지 및 갑오징어 등 제철 음식과 유채꽃밭 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봄철에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8일까지로 결정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 출신 호국영웅인 마하수, 정경달 장군 등의 업적 재조명과 노벨문학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진환 기자